



사단법인 한국상담학회

수신자 전국대학교학생생활상담센터협의회장

(경유)

제목 **코로나19 일반인 대상 무료전화상담 및 온라인 게시판 상담 협력의 건**

1. 귀 기관의 발전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2. 한국상담학회에서는 국가의 사회 및 자연재난 발생 시 상담전문가 집단의 책무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국민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전화상담과 온라인 게시판 상담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귀 협의회에 소속된 센터와 기관들에게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관련하여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협력하고자 합니다.

가. 상담 방법

(1) 무료 전화상담: 대표번호 1522-8872 (주 7일, 낮12시~밤12시까지)

(2) 게시판 상담: www.counselors.or.kr 홈페이지 > 커뮤니티 > 코로나19 상담 게시판
나. 대상: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일반인(대학생, 대학 교직원, 가족 등)
다. 상담사: 한국상담학회 소속 전문상담사, 전화상담 유경험자 50여명(1주간 운영인력)

- 붙임 1. 코로나19 무료상담 계획서 1부.
- 2. 코로나19 무료상담 홍보문 1부.
- 3. 코로나19 무료상담 보도자료 1부. 끝.

사 단 법 인 한국 상담 학 회



팀장 국선민 사무국장 고정미 총무이사 김형수 회장 김인규

협조자 사회적위기상담위원장 한재희

시행 제KCA20-021호 (2020.03.25.) 접수 (2020. . .)

우 06675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 92 세양아르비채 102-404호 홈페이지 www.counselors.or.kr

전화 02-875-5830(내선3번)/ 010-8758-5830 전송 02-874-7351 이메일 webmaster@counselors.or.kr / 공개

붙임1.

(사)한국상담학회 코로나19 무료상담 사업계획서 '코로나19 핫라인 무료 전화 상담/게시판 상담'

○ 주관위원회: 사회적위기상담위원회

1. 사업의 개요

가. 제목: 코로나19 핫라인 무료 전화 및 온라인 상담 게시판 개설 운영

나. 목적: '코로나19'로 심리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한국상담학회 회원 및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전화 및 온라인 게시판을 개설 운영하여 상담을 진행하여 심리적 안정을 도모

* 일반인 : 확진자, 자가격리자, 확진자 가족, 자가격리자 가족, 코로나19로 인한 심리 불안자 등 대국민

2. 무료 전화 상담: 1522-8872 대표번호.

가. 운영 기간: 2020.3.21.(토) ~ 미정(코로나19 잠식 상황 보며 결정)

나. 운영 방법: 정오12:00부터 24:00까지 무료 전화(대표번호:1522-8872)를 통해 상담 진행한다.

다. 운영 인력: 한국상담학회에 소속된 1급 전문상담사 50여명(1주간 운영인력)

라. 운영 매뉴얼:

- 무료 전화 상담 대표 번호 운영
 - 상담 센터 대표번호(1522-8872)와 상담사 개인번호로 연결되어 운영
 - 평일 및 휴일 정오12:00부터 24:00까지 전화 상담 운영
- 전화 상담 모형
 - 상담에 대한 절차



- 전화 상담 요령: 전화상담 가이드라인 마련, 온라인으로 상담사 교육 실시.
- 연계 상담 필요 시: 학회 전국의 교육연수기관으로 연계 안내

3. 온라인 게시판 상담

가. 운영 기간: 2020.3.23.(월) ~ 미정(코로나19 잠식 상황 보며 결정)

나. 운영 방법: 상담 게시판을 통해 Q&A로 진행 운영

다. 운영 인력: 전문상담사 1-2인(운영 상황보면서 총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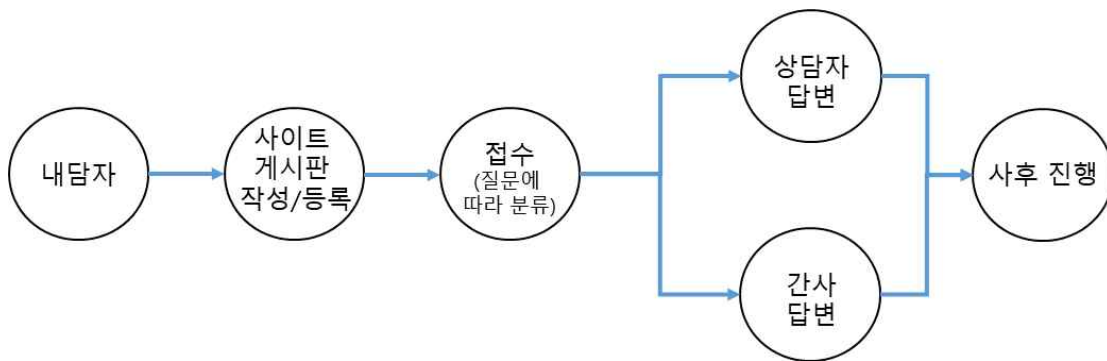
라. 운영 매뉴얼:

○ 게시판 운영

- 사용자에게 보여 지는 게시판 타이틀: 번호/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
- 모든 내용은 비밀글로 작성
- 글쓰기 내용: 작성자 / 작성일 / 제목 / 상담 받고자 하는 내용/ 전문상담사 답변

○ 게시판 상담 모형

- 상담에 대한 절차



‘코로나19’ 무료 전화 상담, 게시판 상담 개설

“전문상담사와 함께 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한국상담학회는 29,000여명의 상담 및 관련 학문 전공 회원들(전국 상담 교수, 석박사, 센터장, 전문상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 상담학의 발전과 상담전문가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상담교육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상담학회는 이번 ‘코로나19’ 심각 단계 격상으로 인하여 상담전문가 집단의 사회적 책무성을 일반인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의 증상과 심리적 불안 등으로 인하여 개인적 삶과 자녀 및 진로와 직업 현장 등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에게 상담전화 핫라인과 게시판 상담을 통하여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마음 건강과 행복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동참 및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상담학회는 국민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이 빨리 돌아오기를 기원합니다.

- 01. 상담시작 3월 21일(토) 낮12:00부터 시작
- 02. 운영시간 낮12:00 ~ 저녁12:00까지
- 03. 상담방법 가. 전화상담 : 1522-8872(정오12:00 - 자정24:00까지)
나. 게시판 상담: www.counselors.or.kr 홈페이지→
‘코로나19’ 핫라인 온라인 상담 게시판 [바로가기 >](#)
- 04. 문의 사회적위기상담위원회 이지희 간사
010-4667-1973 kca10803@kca.bizmeka.com

2020년 3월 18일

(사)한국상담학회 회장 김인규
(사)한국상담학회 사회적위기상담위원장 한재희

담당 부서	한국상담학회 사무국(02-875-5830(내선3)) 사회적위기상담위원회 이지희 간사 (010-4667-1973 / kca10803@kca.bizmeka.com)
배포일/ 페이지	2020년 3월 20일(금) / 총 2쪽
보도일시	2020년 3월 20일(금)

한국상담학회 ‘코로나19’ 핫라인 무료 전화 및 온라인 게시판 상담 개설

- 사단법인 한국상담학회(회장 김인규, 전주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에서는 ‘코로나19’로 심리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사회적위기상담위원회(한재희 위원장, 백석대학교 상담대학원)에서 ‘코로나19’ 핫라인 전화 상담과 온라인 게시판 상담을 운영한다.
- ‘코로나19’ 심리상담 운영은 3월 21일(토) 정오 12시부터 시작되며 상담 시간은 매일 정오 12시부터 자정 12시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상담은 한국상담학회 전화상담 유경험자와 박사 재학 이상의 전문상담사가 실시한다.
- 상담 방법은 전화 상담과 온라인 게시판 상담을 개설 운영한다. 전화상담은 대표번호 1522-8872(정오 12시~자정 12시까지)번으로, 온라인 게시판 상담은 한국상담학회 홈페이지 www.counselors.or.kr 팝업창에서 ‘코로나19’ 상담 게시판을 이용하면 된다.
- 또한 심리적인 어려움으로 후속 상담이 필요한 경우 한국상담학회 소속 전문상담사(수련감독자)가 대표로 상주하는 전국의 교육연수기관 200여 곳으로 연계하여 무료 3회 전화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 한국상담학회는 2000년 6월 3일 창립하여 한국 상담학 연구, 상담학의 발전, 전문

상담사 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담 관련 학과 학부 및 대학원생, 상담 분야의 실무 종사자들, 그리고 교수들로 주로 구성된 2만 9천여 명의 회원들과 400여 개의 기관회원, 210여 개의 교육연수기관, 14개의 분과학회(대학, 집단, 진로, 아동·청소년, 학교, 초월영성, 부부·가족, NLP, 군·경·소방, 교정, 심리치료, 기업, 중독, 생애개발)와 9개 지역학회로 구성된 상담 분야 전국 단위의 대표적인 학회이다.

- 한국상담학회 소속 **전문상담사**(1급, 2급)는 상담 관련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상담 전문 수련 과정을 거친 자로, 현재 **7,914명의 전문상담사**가 상담 현장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 한국상담학회는 상담 전문가 집단의 책무성을 실현하고자, 2014년부터 재난 상담 교육을 실시, 2015년 **재난 상담지원단을 발족**과 매년 재난 상담교육을 연 3회 이상 실시하여 현재 **총 367명의 재난 상담지원단(교육 3회 이수자)**을 양성하였다.
- 또한 한국상담학회는 국가의 사회 및 자연 재난 발생 시 관련 부처에 민간 기관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전국에 있는 전문상담사와 재난상담지원단 중심으로** 각 지역 중심의 상담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안산지역 **세월호 심리상담**, 전국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심리상담**에 참여하였고, 대한적십자사의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대구)**와 협력하여 **경주 지진 및 태풍 차바 피해 지역민 대상 찾아가는 상담** 활동을 하였다.
- 한국상담학회는 앞으로도 상담전문성을 통해 국가적 재난 발생 시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국민의 마음 건강과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일에 참여하고자 한다.
- 문의: 한국상담학회 사무국 02-875-5830(내선3), 사회적위기상담위원회 (010-4667-1973/kca10803@kca.bizmeka.com) <끝>